

WBC 대표팀 구성 표류

김인식 감독 “현역 감독, 코치진 합류” 강조

김재박·조범현 감독 등 대상자들 불참 선언

내년 3월 열리는 아구 최강국 결정전인 제2회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을 앞두고 대표팀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는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영친 실태를 한꺼번에 풀어낼 수 있을까.

하라 다쓰노리 요미우리 자이언츠 감독에게 지휘봉을 맡긴 일본대표팀이 12일 공식 출범하고 13일 WBC 조직위원회가 대회 일정을 발표하면서 KBO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다.

KBO 고위 관계자는 “김인식 감독이 WBC 대표팀을 지휘한다는 가능성에 내년 하와이 전지훈련 시기를 예상 2월 20일에서 4~5일 정도 앞당길 예정”이라고 말했지만 정작 중요한 건 대표팀 윤곽이 언제쯤 결정되느냐는 것이다.

코치진 조각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아시아시리즈 참관차 일본에 간 하일선 KBO 사무총장이 귀국하는 16일 이후에야 대표팀 사령탑으로 선임된 김인식 한화 감독과

보다 밀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전망.

김 감독은 현역 프로팀 감독이 꼭 대표팀 코칭스태프에 합류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태도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않았다. 특히 투구수에 제한을 둘 귀신같은 불펜 운용이 질질한 WBC에서 투수코치만큼은 꼭 현역 감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김재박 LG, 조범현 KIA 감독 등 김인식 감독이 거론한 현역 감독 중 2명이 이미 불참을 선언한 상황에서 김시진 히어로즈 감독에게 이목이 쏠리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하다. 2년 만에 현역으로 돌아온 김시진 감독 역시 타 구단 감독과 형평성을 고려, 팀 성적에 집중하려고 불참으로 돌아선 터라 현재로서는 프로 감독의 전원이 탈 가능성이 큰 편이다.

히어로즈 구단 관계자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예상 김시진 감독의 대표팀 승선을 환영했으나 LG, KIA 등 다른 팀에서 감독 차출을 거부하면서 가장 약한 우리는 명분이

없어졌다. KBO에서 김시진 감독의 합류를 계속 설득한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허락할 수 없다”며 강경한 자세다.

파 막힌 현 상황을 타개하려면 김인식 감독과 각 프로 구단의 양보로 대타협을 이뤄야 한다는 야구계 대체적인 시각이다.

선후배 감독들의 고사로 폐릴리다시피 초대 대회에 이어 2년 연속 지휘봉을 잡은 김인식 한화 감독이 ‘현역 감독을 코치진에 꼭 포함해야 감독직을 수락하겠다’는 예상 조건을 거둔다면 프로 구단의 전폭적인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감독이 아닌 각 구단 코치들을 수혈해 팀을 구성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게 각 구단의 생각이다.

하지만 아무리 대표팀 감독이 영광스러울지라도 현역인네다 60대 노감독인 김 감독 훌륭한 책임을 지는 게 과연 옳은 것인지는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또 멋없이 세계 야구의 최고 스타들이 출동한다는 WBC에 그 나라의 간판급 저도자가 대표팀 유니폼을 입는 게 이치에 맞다는 의견도 우세하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어렵게 대표팀 사령탑에 오른 김인식 감독이 각 구단의 비협조로 지휘봉을 놓는 경우다.

/연합뉴스

내년 3월 WBC 일정 확정…한국, 대만과 첫 경기

제2회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일정이 최종 확정됐다.

WBC 조직위원회는 13일(한국시간) 한국 등 16개국이 참가해 내년 3월 5일부터 23일까지 치러지는 대회 일정을 발표했다.

일본, 중국, 대만과 함께 아시아지역 예선 경인 A조에 포함된 한국은 3월 6일 오후 6시 30분 대만과 첫 경기를 갖는다.

지난 대회에서는 4개국 가운데 본선 진출팀 2개국을 가리는 지역예선전을 풀리그로 치렀던 것과 달리 이번 대회에

는 다소 복잡한 규칙의 패자부활전 제도가 도입됐다.

한국이 대만과 일본-중국 전 승자와 벌이는 경기를 모두 이기면 본선에 진출 하지만 첫 경기에서 지면 2차례 패자부활전을 모두 이겨야 본선에 나갈 수 있다.

2연승을 거둔 팀과 패자부활전에서

올리운 팀은 본선 출전권을 확정한 상태에서 지역 1위와 2위를 다투는 마지막 경기를 펼친다.

아시아지역 예선을 통과하면 미국 샌

디에이고 페코파크와 LA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리는 본선에 진출한다.

아시아 지역에서 올라가는 2개 팀은 페코파크에서 호주, 쿠바,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이 벌이는 B조에서 1.2위를 차지한 팀과 함께 본선 첫 번째 라운드를 갖는다.

8개 팀이 나서는 본선 역시 예선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패자부활전이 포함된 토너먼트를 벌여 4강 팀을 가린 다음 이들이 다시 패자부활전 토너먼트를 통해 우승팀을 가리는 형태로 치러진다.

광주 생활체육 한마음 축제 열린다

내일부터 이틀간 13곳서

20개 종목 5천여명 참가

광주생활체육 동호인들의 한마당 축제 열린다.

광주광역시생활체육협의회(회장 김창준)는 오는 15~16일 광주시 서구 상무공원의 13개소에서 ‘제20회 광주광역시민생활체육 한마음 축제’를 개최한다.

광주광역시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상무시민공원을 주경기장으로 14개 경기장에서 20개 종목 5천여명의 선수단이 참여해 기량을 겨루며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우의와 화합을 다진다.

특히 10인 11각, 승부차기, 이어달리기, 단체줄넘기 등 동호인들이 하나 되는 화합경기를 펼쳐 ‘함께 하는 생활체육’ 정신을 살려 시민축제의 성격을 높일 계획이다.

또 줄다리기, 씨름과 같은 민속경기를 통해 세대간 차이를 좁히는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김창준 광주광역시 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은 “생활체육은 남녀노소, 장애인, 비장애인 할 것 없이 모든 이를 아우르는 것이다”며 “스포츠 7030 캠페인(일주일에 3번, 하루 30분 이상 운동)을 기반으로 건강하고 밝은 1등 광주, 1등 시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밥샵, 재대결 하자”

이왕표 “입식타격 방식으로”

국내 프로레슬링 간판 이왕표(53·사진)가 입식타격 방식으로 ‘야수’ 밥샵(34·미국)과 대결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왕표는 지난 12일 서울 을리풀공원 제2 경기장에서 열린 김일 추모 프로레슬링대회에서 밥샵을 1라운드 시작 1분57초 만에 TKO로 제압한 뒤 인터뷰에서 “밥샵이 다시 나와 맞붙겠다면 그때는 입식 타격으로 다시 대결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러한 이왕표의 발언은 그가 그라운드 기술을 허용하는 종합격투기(MMA) 룰로 싱겁게 밥샵을 제압하자 관중석에서 ‘우~’ 하는 애유에 대한 반응으로 비쳤다.

미국프로풋볼(NFL) 출신인 밥샵은 2005년 9월 K-1 대회에서 ‘테크노 걸리앗’ 최홍만(28)과 맞붙기도 해 국내 격투기 팬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인물. 밥샵의 저돌적인 경기 운영 방식과 겨우에서 나오는 과여 때문에 프로레슬러로 활동해 온 이왕표가 쉽게 이길 거라 예상한 팬들은 그리 많지 않았다.

이왕표는 하지만 “격투기 기술을 더 배우기 위해 태국으로 전지훈련을 가겠다”고 굳은 각오를 전하기도 했다.

이왕표는 일부 팬들 사이에서 “이미 짜인 각본에 의한 경기가 아니었느냐”란 의혹의 눈초리에도 당당하게 대응했다. 그는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으로 해냈다. 상대를 완전히 눌러버렸다”면서 “오늘 팬들의 응원과 열정을 가슴 속 깊이 간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실 밥샵과 종합격투기 룰로 싸우는 게 두렵기도 하고 후회도 됐다. 그러나 사나이로 종합격투기로 해냈다. 고맙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내 볼이야! 13일 구리실내체육관에서 열린 KB국민은행 2008~2009 여자 프로농구 금호생명-삼성생명의 경기에서 금호 신정자(가운데)가 리비운드된 공을 잡고 있다.

/연합뉴스

▲아시아 시리즈 2008<중국 칭진> 한국 SK(12:00·MBC ESPN), <대한통이> 일본(18:00·MBC ESPN)

▲2008 NH농협 제51회 KPGA 선수권 대회 2R(13:00·SBS골프)

▲08/09 여자프로농구<신한은행> 우리 은행(16:50·SBS스포츠)

▲08/09 프로농구<보스·KT&G>(18:50·SBS스포츠·XPORTS)

▲KBSN 코리안 컨텐더 1차 대회(19:

00·KBS N SPORTS) 15일토)

▲AFC U-19 챔피언십 결승(00:30·SBS스포츠)

▲축구 국가대표 평가전<대한민국> 카타르(00:35·SBS·XPORTS)

▲2008 LPGA 로레나 오초아 인비테이셔널 2R(05:20·SBS골프)

▲08/09 NHL<디트로이트> 플로리다(09:30·SBS스포츠)

14일금)

▲08/09 월드컵리그 배구<VFB 프리드리히시하펜> 이스크리(04:00·KBS N SPORTS)

▲2008 LPGA 로레나 오초아 인비테이션 1R(05:20·SBS골프)

▲08/09 월드컵리그 축구<한국>

▲08/09 월드컵리그 축구<한국>